

〈상태〉류 속담의 의미구조 유형 연구

고아라(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결론 |
| 2. 〈상태〉류 속담의 의미구조 | |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속담은 의미적인 특수성을 띄는 대표적 언어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의미론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의미론적 연구 중에서도 그간의 속담 연구는 속담을 관용표현의 일종으로 보면서 관용의미에 집중하여 왔다. 따라서 속담을 유형화 할 때 의미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¹⁾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이미 관용화 된 의미에만 집중되어 속담 내용에 중점을 두었지 속담이

1) 이러한 대표적 논의로는 양영희(1990)이 있다. 이 연구는 속담문의 전체를 두고 그 의미구조를 유형화하고, 이 의미구조들은 일반문과의 다름을 입증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으나 속담의 의미가 발현되는 원리를 구조적 비유와 어휘적 상징이라는 비교적 넓고 추상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비슷한 논의들로 심재기(1982), 송명수(1989), 최창렬(1995), 유재복(2001), 이수미(2003), 장경현(2008) 등이 있다.

발현되는 직설표현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속담이 발현되는 과정에 포함된 형식과 의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속담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는 개념주의자적 의미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속담의 의미/개념구조와 형태적 정보도 알아보고자 한다. 의미/개념 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의미/개념 목록은 일정 정도 우리말에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성분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²⁾ 속담의 형태적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속담의 직설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속담의 직설의미/개념 구조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관용의미의 발생 위치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속담의 관용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밑작업을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개념주의자적 의미론에 따른 속담의 하위 유형에는 크게 <사건>류, <상태>류, <대상>류가 있다는 것을 고아라(2011)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건>류나 <대상>류와는 달리 <상태>류 속담의 경우,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에 의하여 나누었을 때 속담의 표면 형태에 통일성이 발견되지 않는다.³⁾ 이는 품사의 속성이 제1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에 해당하는 서술어 상당어구의 의미적 속성을 제1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⁴⁾

이렇게 형태 정보와 의미 정보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류 속담을 대상으로, 첫째,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정보에 따라 의미정보와 형태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상태>류 속담을 하위분류할 것이다. 둘째, <상태>류 속담의 하위 유형이 되는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식적 정보와 그 의미적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태>류 속담의 각 하위 유형들이 갖

2) 고아라(2011)에 따르면 속담의 직설의미의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으로 <사건>, <상태>, <대상>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어의 서술어 특성에 따른 문장 부류 분류 방법과 대략적 일치가 일어남을 기술하고 있다.

3)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1.2에서 좀더 세밀한 기술을 할 것이다.

4)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에서 <사건>이란 인식론적으로 특정시간에 일어난 동적 구성이 수반됨을 개념화한 것이나 전 시간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동적 구성이 수반됨을 개념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상태>란 인식론적으로 전 시간대에 걸쳐 유지된 정적 구성을 개념화한 것으로 동적 자질이 수반되지 않는 의미/개념 목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은 동적·정적 개념화가 불가능한 구체적 지시물을 가리키는 의미/개념 목록이다.

는 특징을 논항들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를 통해 각 속담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상태>류 속담의 개념과 유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속담은 <상태>류 속담이다. <상태>류 속담이란 의미/개념 구조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미/개념 목록의 의미 자질 정보가 [-사건], [+상태]인 경우의 속담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모든 속담(9559개) 중 <상태>류 속담에 해당하는 2307개이다.⁵⁾ 이는 전체 속담에서 약 23.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물론 이는 전체 속담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유형의 속담은 아니다. 속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56.32%를 차지한 <사건>류 속담이다.⁶⁾ 수치상으로 보면 <사건>류 속담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별히 <상태>류 속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예문을 보면,

- (1) 가. 고운 일 하면 고운 밥 먹는다
 나. 밥 아니 먹어도 배부르다
 다. 입에 붙은 밥풀

위 (1) 예문은 각각 (1 가)은 <사건>류 속담, (1 나)은 <상태>류 속담, (1 다)은 <대상>류 속담의 기본형을 나타낸 것이다. 보통 각각의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동사이면 <사건>류, 형용사이면 <상태>류, 명사 또는 '명사+이다'이면 <대상>류로 대응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기본형이

5) <상태>류 속담 전체 집합을 놓고 하위 유형 분류 작업을 한 것이므로 <상태>류 속담은 모두 <상태>형, <상태(사건)>형, <상태(대상)>형 속담 중 하나에 해당된다. <상태>형 속담은 1559개, <상태(사건)>형 속담은 총 732개, <상태(대상)>형 속담은 13개이다.

6) 이는 고아라(2011)에서 '밥' 포함 속담 총 251개를 분석한 비율 양상이 대략 비슷하게 나타난다. <사건>류 속담은 총 155개, <상태>류 속담은 총 57개, <대상>류 속담은 총 39개이다. 이를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환산해 보면 각각 약 61.75%, 약 22.71%, 약 15.54%이다. 전체 속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밥' 포함 속담이 <사건>류 속담의 비중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밥'이라는 어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연구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밥'은 의미/개념 목록에서 주로 대상의 역할을 많이 하고 이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류 속담의 대표적 구조이며, <대상>류 속담의 대표적 구조이다. 또한 위 (1)과 같은 구조의 속담들이 각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아래 예문 (2)는 <상태>류 속담의 예문이며 각각의 유형이 심심하지 않게 등장한다. 즉 <사건>류 속담이나 <대상>류 속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기본형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2) ㄱ.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ㄴ. 가물에 콩(씨) 나듯 - 가물에 콩(씨) 나다+듯

ㄷ. 단골무당 머슴같이 - 단골무당 머슴+같이

위 (2 ㄱ)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크다’로 실현되어 <상태>류 속담임을 혼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류 속담의 기본 형태이다. 그렇지만 (2 ㄴ)은 서술어 부분이 ‘나다’이므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을 <사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2 ㄷ)은 서술어 부분이 ‘단골무당 머슴’으로, 최상위 의미 개념 목록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다. (2 ㄴ, ㄷ)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술어 상당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같이’, ‘-듯’과 같은 조사나 보조형용사가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의 보조형용사나 조사를 결합시킴으로써 이 속담들은 그 의미 구조를 <상태>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태>류 속담은 다른 유형의 속담들에 비하여 구조적 특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밀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각 하위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상태>류 속담의 의미구조

속담을 <사건>류, <상태>류, <대상>류로 분류한 것은 Ray Jackendoff의 개념주의자적 의미론에 입각하여 속담에 적용시킨 분류 방법이다. Ray Jackendoff는 서로 다른 어휘항목이 의미라는 특정한 단위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문장의 의미 구조를 형성규칙⁷⁾에 의하여 도출해냈다.

이 형성규칙에 의해서 맨 위에 위치하는 의미/개념 목록을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어의 경우,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서술어 기능을 한다. 따라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사건>, <상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⁸⁾

특히 <상태>류 속담의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의미구조 유형에 세 가지가 있다. [-사건], [+상태] 자질을 갖는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당연한 경우이며, 그 밖에도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의미 자질에 [+사건], [-상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사건], [-상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1. <상태>형 속담의 의미 구조

<상태>형 속담이란 <상태>류 속담의 하위 유형으로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단일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2.1.1.에서는 이 속담의 유형 분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의미/개념의 형태 정보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2.2.2.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속담의 전반적인 특징을 형성규칙으로 도식화하여 논항들과 어우러지는 모습 속에서 속담의 전체 의미와 속담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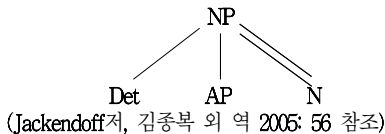
2.1.1.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 · 의미

<상태>형 속담에는 다음 (3)과 같은 예가 있다.

- (3) ㄱ. 가난이 질기다.
 ㄴ. 산 개 새끼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7) 형성규칙은 통사구조를 설명할 때 적용되는 규칙으로, 어휘요소들이 어떻게 보다 더 큰 단위로 결합되고, 그 결과 다시 더 큰 구성소를 이루는가를 명시하는 것이다. 명사구를 형성하는 규칙을 예로 제시하면,

NP → Det - AP - N



8) <사건>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사건], [-상태], <상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사건],[+상태], <대상>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사건], [-상태]라는 의미적 특성을 지닌다.

ㄷ.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ㄹ. 풍년두부 같다.

위에 제시된 예문 (3) 모두 서술어가 복합적 구조를 지니지 않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속담들의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는 우리말 형용사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서 <상태>의 의미 속성을 드러낸다.

(3 ㄱ)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질기다’로 대응되며,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는 성상 형용사나 감정 형용사로서 실현되는 예문이다. [+상태]라는 의미 자질에 또 다른 의미 자질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이다.

(3 ㄴ)은 ‘넋다’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며, 그 서술상의 의미적 특징이 {+비교}의 속성을 가진다. 위 (3 ㄴ)은 같은 뜻을 가진 속담이지만 다른 표면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라는 또 다른 실현형이다. 이 때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 또한 단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비교}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의 의미적 특성을 지닌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는 ‘넋다, 못하다’가 대표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풍년거지 더 싫다’의 경우처럼 일반 형용사가 ‘더’와 같은 부사를 취함으로써 {+비교}의 의미 속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3 ㄷ)은 ‘있다’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에 대응된다. 존재사 ‘있다, 없다’가 상태의 단일 구조 유형의 대표적 형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의미 속성은 {+존재}이다. 이렇게 단순한 존재의 여부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형용사적 특성이 강하며 그 의미 또한 사건적이기보다는 상태적이다. 그런데 ‘있다, 없다’의 경우에는 기본형이 쓰일 때와 활용형이 쓰일 때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달라진다. 즉 ‘없애라, 없어지다’와 같은 활용형의 경우에는 사건 정보의 의미적 속성을 갖게 되며 상태 속성의 의미 정보는 반감된다.

(3 ㄹ)은 넓은 의미에서 앞서 살핀 (3 ㄴ)의 경우처럼 최상위 의미/개념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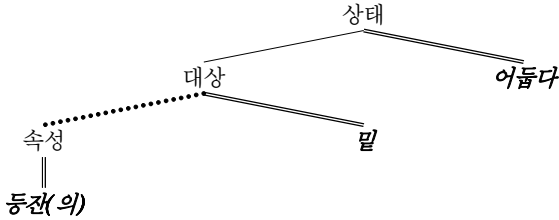
9) { }에 나타나는 의미 자질은 []로 분류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에 논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한 의미장 자질이다. 즉 {+비교}는 [+상태] 안에서 좀 더 분명한 논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를 설정하고 그 문장의 논항과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비교}의 경우, 의미 논항으로 비교 대상이 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존재}의 경우에는 의미 논항으로 공간이나 장소가 올 수 있는 경우와 소유주와 소유 물건 논항을 가질 수 있는 두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록은 {+비교}의 자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속담 표면에서 드러난 비교대상끼리의 비교라기보다는 설명대상이 가지는 하나의 속성과의 비슷한 점을 청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그 의미적 특징이 달리 발현된다.

2.1.2. <상태>형 속담의 의미와 기능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상태>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단순 형용사 형태일 경우와 {+비교} 자질을 가진 경우, {+존재}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 예문을 가지고 형성규칙을 적용하여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취하는 다른 의미/개념 목록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각각의 속담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단순 형용사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인 (4)의 예문을 보면,

- (4) 등잔 밑이 어둡다.
a. 의미 형성 규칙 적용



- b. 의미/개념 구조
[[상태 어둡다 ([대상:상태주 밑[속성 등잔(의)])]]

위 (4) 예문의 의미 형성 규칙이 적용된 모습을 보면 실선으로 처리된 것은 상위 의미 목록에 대한 논항임을 뜻한다. 또한 이중 실선은 의미 목록에 대응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점선은 수식구조임을 드러낸다. (4)는 '무엇이 어떡하다'라는 문장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어떠한 생략이나 확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형 속담이다. 다만 '대상:상태주'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면서 수식 구조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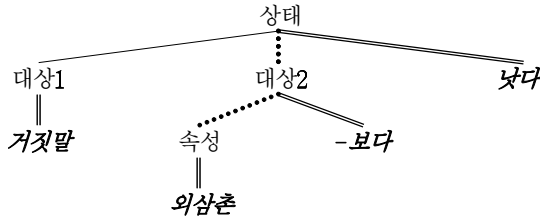
속담의 문장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직설 의미는 어떤 하나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어둡다’에 대한 필수 논항이 [-유정성] 인데 반하여, 이 속담을 듣는 청자는 사람이므로 특수적이고 개별적인 상태적 상황에 빚들어 효과적인 속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설표현은 단순한 상태의 전형적 문장이지만 청자와 관련하여 속담이 의미적 기능을 할 때에는 경고, 명령, 지시 등으로 바뀌면서 비유적 의미, 관용화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태>형 속담 중에서 {+비교} 자질을 더하여 가지는 예문 (5)를 보면,

(5)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a. 의미 형성 규칙 적용



b. 의미/개념 구조

[상태 낫다[대상2:비교 -보다[속성 외삼촌]] ([대상1:상태주 거짓말]]

(5)는 전형적 비교문의 형태로 <상태>형에 포함되는 속담이다.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으로 ‘낫다’가 오며, 이 ‘낫다’에 대한 상태주로 작용하는 대상은 ‘거짓말’이다. 여기에서 외삼촌에 격조사 ‘보다’가 덧붙어 ‘낫다’를 수식하고 있다. 이는 거짓말과의 비교할 대상이 나타나야 할 자리이므로 그 의미/개념 목록은 <대상>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구조에서 ‘외삼촌’은 ‘거짓말과 대립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또 하나의 <대상> 목록으로 보기보다는 ‘외삼촌+보다’라는 <대상> 복합 구조에서 <속성>의 목록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5)의 속담은 {+비교}의 의미 자질을 가진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과 상태주가 되는 대상, 그리고 상태주와 비교 대상이 되는 목록의 조합으로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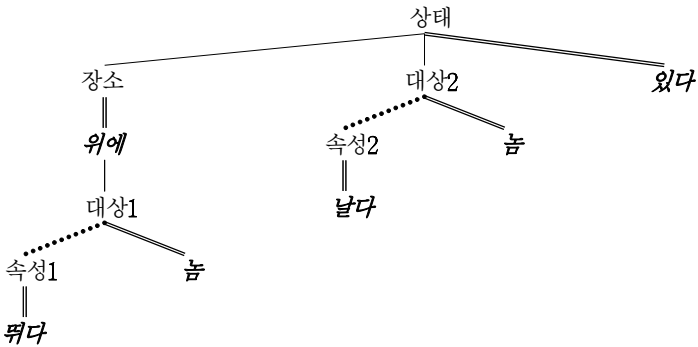
져 있다.

이러한 속담은 앞서 2.2.1에서 언급했듯이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낮다, 못하다, 만하다’ 등으로 실현되며, 이 때 (5)와 같이 상태주 대상과 비교 대상이 ‘낮다, 못하다’의 경우 대립적 의미 자질을 가진다. ‘거짓말’은 보통 부정한 행위이며, ‘외삼촌’은 보통 가족의 일원으로서 친근하며, 긍정적 존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은 [-긍정], ‘외삼촌’은 [+긍정]을 가진다. 그러나 위 속담에서는 예상되는 의미 자질로서 의미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주와 비교대상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반전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대립적 의미 자질의 배열은 극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언중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방편으로 보인다. 한편 의미의 반전 작용은 언중들에게 경계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속담에 자주 사용된다.¹⁰⁾

마지막으로 <상태>형 속담에서 {+존재} 자질을 가지는 예문을 (6)과 같이 분석해 보면,

(6)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a. 의미 형성 규칙 적용



b. 의미/개념 구조

[상태 있다 ([장소 위에 ([대상1:처소 놈[속성1 뛰다]]]), ([대상2:상태주 놈 [속성2 날다]])]

10) 의미의 반전 작용은 속담 표현에서 자주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4)에서 살펴본 ‘등잔 밑이 어둡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속담들은 공감, 교화의 기능보다는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6)의 경우, ‘있다’라는 형태의 <상태> 의미/개념 목록이 가지는 필수 논항은 ‘무엇이’에 해당하는 설명 대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장소의 의미를 필수적인 의미 논항으로 가지며 그 안의 대상이 상태주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태>형 속담에서 잘 드러나 (5)와 같은 비교문¹¹⁾의 구조의 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교}의 의미를 지닌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나 {+비교}를 위한 필수 <속성> 의미/개념 목록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비교 표현이다. 이는 문답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있다’에 대하여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 의미/개념 논항만 존재한다고 하면 ‘나는 놈이 있다’이다. 우리는 이 문장에 대하여 완전한 의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줄곧 ‘어디에?’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보통 이런 경우, 공간적 의미를 가진 전형적인 장소를 드러내는데¹²⁾ 이곳에서는 ‘나는 놈’과 비교대상을 장소 의미/개념 안으로 끌어 들여 비교구문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미 논항에 있어서 상태주가 [+유정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특히 그 유정성이 [+인간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 속담을 접하는 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공감 기능이 먼저 작용한 후 속담의 본연의 기능인 교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상태{사건}>형 속담의 의미구조

<상태{사건}>형 의미구조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최종적으로 [-사건], [+상태]의 자질을 가지지만 그 안에 [+사건], [-상태] 의미의 서술어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비록 [+사건]성을 띠지만, 속담의 직설표현의 전체 의미는 [-사건], [+상태] 자질이다. 그러므로 <상태>류 속담으로 분석함이 마땅하다.

-
- 11) 속담에서 전형적 비교문 형태는 속담의 표면형에 직설적 비교 표현 즉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낮다, 같다, 못하다, 만하다’ 등으로 나타난다거나 비교 표현을 위한 필수적 부사인 ‘더’나 ‘덜’ 등이 <속성>의 의미/개념 목록으로 실현되어 <상태>의 의미/개념을 제한하는 것이다.
 - 12) ‘있다, 없다’ 등의 존재사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으로 등장할 경우 상태주에 해당하는 논항이 필수적이며, 장소 의미/개념 논항은 수의적으로 등장한다. 이때 장소 의미/개념 논항이 등장할 경우, 순수한 의미의 장소가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 ‘있다, 없다’의 의미를 드러내는 속담의 의미 구조라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마룻구멍에도 벌 들 날이 있다’, ‘배 안엿[안에] 조부는 있어도 배 안엿[안에] 형은 없다’ 등을 들 수 있다.

2.2.1.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 · 의미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은 무조건적으로 단일 구조 형식을 가지지 않는다. 특히 <상태>류 속담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복합적 의미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사건>을 통하여 <상태>를 드러내는 속담을 살펴면서 이러한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적 정보와 그 정보가 지닌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7) ㄱ.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ㄴ. 불고 쓴 듯하다

위 (7)의 경우, <사건> 의미/개념 목록을 <상태>화 시키고 있는 속담의 예들이다. 이들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을 <상태>화하기 위해 ‘듯, 듯하다’와의 결합 모습이 보인다. 즉 ‘<상태{사건}>’형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적 표지는 ‘듯, 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듯, 듯하다’가 김용석(1982)에 의하면 그 의미 자질이 기본적으로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사성의 의미라 함은 국어에서 ‘같다’라는 대표적 서술어 범주로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듯’과 ‘듯하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서 <상태>화 시키고자 할 때 쓰는 표지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듯’과 ‘듯하다’는 그에 선행되는 사건과의 유사성에서 비롯되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듯’과 ‘듯하다’ 사이에 차이도 존재한다. ‘듯하다’는 ‘듯’의 [+유사성]에 주관화 기능소 ‘하다’가 결합하여 사태에 대한 가능성, 개연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책임감과 관련한 의미 차이가 있다.¹³⁾ 하지만 그 의미

13) ‘듯’은 화자의 태도와 관련성이 적은 반면, 이기중(2000)에 의하면 ‘듯하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강해지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이 강한 경향이 있다. 이기중(2000)에서 제시한 예문을 가공하여 이 논의에 맞게 제시하여 보면,

Q: 집에 들어갈 때, 영희가 먹을 것 뭐 사갈까?

A1: 영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듯해요/ 듯}.

A2: 영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 {듯해요/ 듯}.

위 예문에서 보이듯이 ‘듯’은 단순한 자신의 생각을 영희의 상황을 보았을 때 비슷한 경험에서 유추해낸 짐작의 표현이라면 다 쓰이는 반면에, ‘듯해요’는 자신의 말에 확정적이지 않을 때 출현하지 않는다.

차이도 결국은 [+유사성]이라는 의미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속담들은 예외 없이 {+비교}적 속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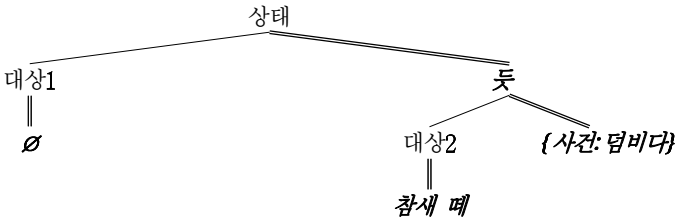
(7 ㄱ)의 경우, <사건> 의미/개념 목록이 ‘덧’의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과 결합한다. 이러한 경우, 주로 동물이나 부정성을 가진 사람과 결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7 ㄴ) ‘덧하다’는 주로 사람을 대상 의미/개념 목록으로 취하고 있다.¹⁴⁾

2.2.2. <상대{사건}>형 속담의 의미와 기능

<상대{사건}>형 의미구조의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 형태 표지에 따라 두 가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사건>+덧’인 경우를 살펴보면 (8)과 같다.

(8) 참새 떼 덩비덧

a. 의미 형성 규칙 적용



b. 의미/개념 구조도

[상태{사건} 덩비다([대상2 참새 떼]) - 덧([대상1 ∅])]

‘<사건>+덧’이 최상위 의미/개념으로 작용하는 속담들은 어떤 결합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논항들과의 연결을 통해 알아보면, 먼저 형성 규칙 과정에서 보이듯 ‘덧’에 걸리는 필수 논항은 생략되어 나타난다. 이 논항은 속담을 말한 화자의 관찰대상인 동시에 속담의 주어로서 참새 떼가 덩비는 상태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찰대상의 생략은 속담의 사

14) 본고의 2.2.2.에서 그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용과 관련된다. 속담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상황과 맥락에 맞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므로, 특정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의 예문에서 <사건> 목록이 취하는 또 하나의 필수 논항은 [+유정성], [-인간성]을 갖는다. 물론 ‘모주 장사 열 바가지 두르듯’과 같이 [+유정성],[+인간성]의 자질의 논항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부정적 대상을 가리키는 논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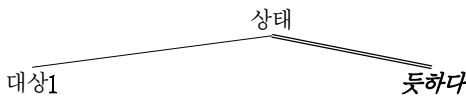
이러한 두 가지 결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듯’과 결합한 사건에 걸리는 논항은 이 속담을 사용하는 사람, 즉 화자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결격 사유 없는 온전한 존재로서,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대상을 논항으로 삼는 구조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유정성]을 전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삶은 개 다리 뒤틀리듯’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정성]의 주체도 우월한 인간이 관찰 가능한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이라는 의미/개념 목록 자체가 어떤 움직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정성]이 전제된 논항인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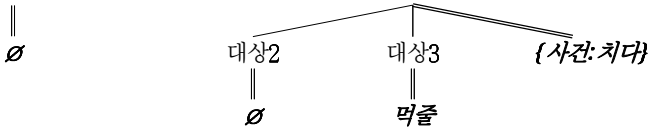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유형의 속담들은 지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중들이 지금껏 경험해 온 인간의 일반적 속성들을 관찰 가능한 대상들이 행하는 사건과의 유사한 특성을 찾아내고, 또 그 특성을 효과적 말하기를 위한 언어 표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언중들의 축적된 삶의 지혜의 표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속담과 같은 관용표현의 사용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속담의 주요 전제가 되는 공감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상태(사건)>형 의미구조를 가진 <상태>류 속담 중에서 ‘<사건>+듯하다’의 표지를 가지는 속담을 살펴볼 것이다. (9) 예문을 보면,

(9) 먹줄 친 듯하다

a. 의미 형성 규칙 적용





b. 의미/개념 구조도

[상태(사건) 치다([대상2 ∅], [대상3 먹줄]) - 듯하다([대상1 ∅])]

‘듯’에 ‘하다’가 후행하는 형태적 표지를 가진 이 속담에서 ‘하다’는 ‘화자의 인식상태가 비유한 것과 같은 상태이다’를 ‘듯’보다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건 의미 목록이 가지는 설명 대상 논항이 [+유정성],[+인간성]으로 주로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논항의 특성으로 ‘먹줄 치다’라는 서술부의 의미는 인간이 경험해본 사건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속담의 발생 과정 중 화자가 경험해본 일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일반화 된 이유는 또한 많은 언중들이 ‘먹줄 친’ 경험을 해봤기에 속담의 공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나의 관용표현으로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적 경험, 즉 관찰에 의한 경험의 유사성을 짐작하는 것이 주로 ‘듯’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면 직접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으로 그 유사성을 추출하여 비유를 시도한 것은 ‘듯하다’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인간의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의 모습이나 성질들의 유사성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고자 ‘듯하다’라는 <상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속담은 직접적 발화로 쓰이기보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러한 종류의 속담은 삶의 축적된 지혜의 결과물의 기능을 하며 생생하고 풍부한 언어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15) ‘먹줄 친 듯하다’라는 속담의 의미는 ‘무엇이 한결같이 끈고 바르다’이다. 즉 비유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이 ‘끈고 바르다’라는 것을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는 것이다. 언중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속담은 교화와 풍자, 경계의 기능이 아니라도 풍부한 언어생활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3. <상태{대상}>형 속담의 의미구조

<상태{대상}>형 의미구조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사건], [+상태]의 자질을 가지지만 [-사건], [-상태] 의미의 서술어 형태를 안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서술어 형태는 명사를 취하고 있지만 조사 ‘처럼’, ‘같이’에 명사구가 선행 인접하여 ‘같다, 비슷하다’라는 서술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상태>류 속담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경우는 <상태>류 속담의 하위 유형으로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¹⁶⁾ 의미 구조 분석을 통하여 부사격 조사 ‘같이, 처럼’이 관용표현에서 가지는 특수 기능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많은 경우 대체가 가능하여 많은 혼란 속에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 ‘같이’와 ‘처럼’의 의미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1.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 · 의미

<상태{대상}>형 의미구조 역시 <상태{사건}>형 의미 구조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구조가 복합적이다. 하지만 상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에 인접해 있는 것이 명사형으로서 [-사건], [-상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명사구로만 상태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힘들 것이다. 명사상당어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데, 명사상당어구의 상태를 서술하기 위한 역할은 바로 부사격 조사 ‘같이’, ‘처럼’이 담당한다. 이렇게 ‘명사+조사’의 결합으로 <대상>의 <상태>화를 이루는 속담에는 아래 (10)과 같다.

- (10) ㄱ. 단골무당 머슴같이
 ㄴ. 길가의 조약돌처럼[조약돌 같다]

또 다른 복합구조인 <상태{사건}>형의 경우도 <상태>화의 형태 표지인 ‘듯’과 ‘듯하다’는 [+유사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10)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

16) <상태>류 속담 2307개 중에서 13개에 불과하여 약 0.6%를 차지하고 있다.

처럼 여기에서도 <상태>화의 형태 표지인 ‘같이’와 ‘처럼’도 [+유사성]을 기 반에 두고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료가 부족해서 <상태>화의 표지 인 부사격 조사 ‘같이’, ‘처럼’의 의미 정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이라 예상되는 바, 관용표현이 아닌 경우에 ‘같이’와 ‘처럼’이 쓰인 자료를 통 해 각각의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특히 위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사격 조 사 ‘같이’, ‘처럼’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를 살핌으로써, 일반적 표현과 관용 표현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먼저 (11)의 예문을 통해 ‘처럼’과 ‘같이’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면,

(11) ㄱ. 선우관은 불같이/불처럼 화를 내었다.

ㄴ. 비가 억수같이/?억수처럼 퍼붓는 고속터미널 앞

ㄷ. 그렇지만 이제부터 너를 친구라 그러지, 이때까지처럼은/?이때까지 같이는 안 그런다” 그러는 건 왜 그런고 하니, 좋은 주인이 하는 걸 뜻을 모르지만, 겉으로는 참 순종을 잘 해요.

위 (11 ㄱ)은 ‘같이’와 ‘처럼’이 교체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11 ㄴ)의 경우는 ‘억수같이’는 비유 대상인 ‘비’와 그 주체인 ‘비’의 설명어 ‘퍼붓다/쏟아 지다’까지도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결되어 있어 마치 관용표현처럼 쓰이고 있 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억수처럼’이라는 표현은 ‘SJ-RIKS Corpus’ 말 뭉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어화자들 사이에서 매우 친숙하며 전형적인 비유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하면 될 것이다. 또한 (11 ㄷ) 대조의 의미를 지닌 맥락에서 ‘처럼+은’의 구조로 실현되는 경우 이다. 여기에서 ‘이때까지’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유사성을 두루 표현하기에는 전형적인 유사성을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 ‘같이’에 비하여 적합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용표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상>목록에 ‘처럼’이나 ‘같이’가 덧 붙어 문장을 끝맺는 경우의 예문을 보면 다음 (12)와 같다.

(12) ㄱ. 미나마타병의 피해를 고발한 유진 스미드의 사진이 주는 감동과 파급 효과같이.

ㄴ. 늘 푸른 소나무처럼.

(12 ㄱ)의 예문은 글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여 그로써 전체 글을 종결짓는 역할을 한다. (12 ㄱ)은 글 전체에서 보여준 ‘유진 스미드의 사진이 주는 감동과 파급 효과’의 전형적 특성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추려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사 ‘같이’는 형용사 ‘같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 안에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사 ‘같이’로 끝을 낼 경우, 여운을 남겨 독자들에게 ‘유진 스미드의 사진이 주는 감동과 파급 효과’의 전형성을 곱씹게 하는 기능을 한다.

(12 ㄴ)은 <대상>목록에 ‘처럼’이 후행하는 형태이며, 글의 제목 역할을 하고 있다. 글의 제목이라는 것은 본디 글 전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집약해 놓은 형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목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늘 푸른 소나무’의 여러 속성들을 예상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제목은 글의 결론에서 보이는 문장인 (12 ㄱ)보다 독자가 배경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접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전형적 내용을 선행어로 선정하는 조사 ‘같이’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구조는 신문이나 칼럼, 수필 등의 제목으로 자주 출현한다. 이는 앞으로 읽을 글의 맥락 정보 중 핵심 속성을 잘 파악하도록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앞서 살폈던 (12 ㄴ)과 유사하게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서술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2.3.2. <상태{대상}>형 속담의 의미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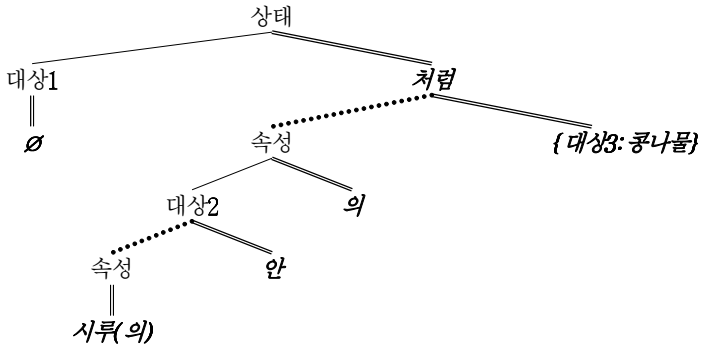
<상태{대상}>형 속담의 형태 표지는 <대상>목록에 ‘같이’와 ‘처럼’이 결합한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같이’와 ‘처럼’의 의미 차이에 있어서 ‘같이’가 선행 <대상>목록에 대한 전형적 속성에 대한 유사성을 표현하기 위한 어휘라면, ‘처럼’은 선행 <대상> 목록에 대하여 비교적 예측이 어려운 특수하고 개별적 속성에 대한 유사성을 표현한다.¹⁸⁾

17) 제목에 ‘같다’나 ‘비슷하다’류의 직접적인 <상태>목록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글의 제목은 주제문과 혼동되지 않도록 문장구조를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속담이라는 언어 표현은 그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전형성과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진다. 때문에 두 형태 모두를 같이 놓고 형성규칙을 적용하여 의미구조를 파악하고, 속담의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13)의 예문을 보면,

(13) ㄱ. 시루 안의 콩나물처럼

a. 의미 형성 규칙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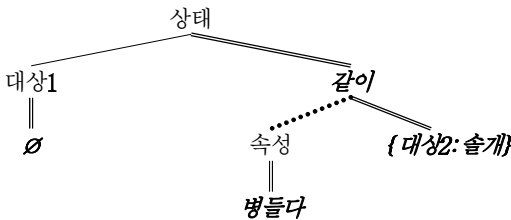


b. 의미/개념 구조도

[상태(대상3) 콩나물[속성 의([대상2 안[속성 시루(의)])] - 처럼([대상1 ∅])]

ㄴ. 병든 술개같이

a. 의미 형성 규칙 적용



b. 의미/개념 구조도

[상태(대상2) 술개[속성 병들다] - 같이([대상1 ∅])]

18) 이는 본고의 2.3.1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위 (13)의 예문은 <상태>류 속담의 하위 유형이다. 속담이라는 것은 본디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속성에 대한 유사성인지 국어 화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관용표현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굳이 서술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각각 ‘같다’, ‘비슷하다’와 같은 서술 기능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더욱더 관용화가 되면 ‘유사성’을 드러내는 조사로 그 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¹⁹⁾ 한국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사전정보나 상태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밥의 도토리’라는 널리 알려진 속담도 아마 ‘개밥의 도토리 같다> 개밥의 도토리같이> 개밥의 도토리’나 ‘개밥의 도토리과 비슷하다> 개밥의 도토리처럼> 개밥의 도토리’의 과정을 거쳐 관용화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13)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용화 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13)의 예문은 공통적으로 <상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상태주 역할을 하는 대상¹ 논항은 생략 상태이다. <상태>형 속담과 <상태{사건}>형 속담에서 {+비교}의 의미 자질을 가진 경우에 대상¹ 즉 상태주인 동시에 청자인 논항이 생략되어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같은 {+비교}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담으로 표현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청자들을 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속담의 유형도 앞서 살핀 <상태{사건}>형 중에서 형태 표지가 ‘듯’인 경우와 유사하다. 관찰을 통한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유사함을 발견하여 언어 표현으로 고착화 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언중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어냈기에 가능하며, 인간과의 유사 속성을 짚어 내는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속담으로서 공감 기능과 다양한 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상태{사건}>형 의미 구조에서 <상태> 목록과 인접한 <사건>의 <대상> 논항이 모두 [+유정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13)의 구조에서는 (13 ㄱ)에서처럼 [-유정성]의 자질을 가지기도 한다는 차이를 발견해냈다. 이는 <상태{사건}>형의 경우 <사건>의 의미/개념 목록은 [+사건], [-상태]의 개념이

19) 이러한 속담 유형으로 <대상>류 속담을 들 수 있다.

며 이는 [+행동] 자질을 내포하므로, [-유정성]은 잘 맞지 않는 대상이 되지만, <대상>의 의미/개념 목록은 [-사건], [-상태]의 자질이므로 특별히 [유정성] 자질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본고에서 이제까지 고찰한 <상태>류 속담에 대하여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류 속담을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에 따라 또 다시 하위 유형화가 가능하다. 단일 의미 구조인 <상태>형 속담, 복합적 의미 구조를 지닌 <상태{사건}>형 속담과 <상태{대상}>형 속담으로 분류된다.

둘째, <상태>형 속담의 최상위 의미/개념의 형태적 표지는 단순히 상태주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형용사 류가 있고, {+비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낮다, 못하다, 만하다’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유사성}의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같다’ 표지가 있고, {+존재}의 의미자질을 실현시키기 위한 ‘있다, 없다’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으로 발현되는 속담은 의미구조에 따라 비유적 표현, 경고 및 경계, 교화, 공감의 기능을 한다. 이 유형의 속담은 다양한 구조와 의미 자질을 포함하므로 <상태> 류 속담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셋째, <상태{사건}>형 속담의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는 ‘동사+دت’, ‘동사+دت하다’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دت’과 ‘دت하다’라는 표지로 인해 <상태>성 의미/개념 목록으로의 변화에 도움을 받게 되며, [+유사성]의 자질을 포함하게 된다. 반면에 ‘دت’은 비교적 제한이 없지만 ‘دت하다’는 주관화 기능을 하는 ‘하다’가 첨가됨으로써, 화자의 느낌이나 직관에 의지하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형태 표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속담의 의미구조도 일정부분 고정되어 있으며 비슷한 기능을 한다. 직·간접 경험을 통한 비유표현을 창출하여 다양한 언어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속담으로 언중들의 경험을 통한 지혜를 공감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상태{대상}>형 속담은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형태가 ‘명사+같

이, ‘명사+처럼’으로 실현된다. <상태>화의 형태 표지인 ‘같이’와 ‘처럼’은 [+ 유사성]을 기반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같이’와 ‘처럼’이 ‘같다’나 ‘비슷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상태>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언중들과의 공감 기능을 활발히 하는 의미구조이며 다양한 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 <상태>류 속담을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의미구조에 따라 하위분류를 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속담의 직설표현의 의미 구조를 통하여 논항과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과의 관계를 통해 속담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동일한 유형은 동일한 기능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의미구조가 같으면 일정 부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언어표현이 직접화행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이들 유형과 다른 <사건>류 속담과 <대상>류 속담의 하위분류 문제와 그 각각의 유형 별 의미구조에 따른 속담의 차이가 아울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주(2000), 「관용어의 논항구조와 형성제약」, 『어문논집』42.
- 고석주·양정석·옴김(1999), 『의미구조론』, 한신문화사.
- 고아라(2011), 「관용표현의 어휘의미 확대 양상에 관한 연구-‘밥’포함 속담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고영근·구본관(2010),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개정판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승곤(2009), 『(21세기) 국어 토씨 연구』, 경진문화사.
- 김용석(1982), 「‘뚝’의 의미와 통사」, 『배달말』7, 배달말학회.
- 김종복·박정운·이예식·옴김(2005), 『레이 제켄도프의 언어의 본질』, 박이정.
- 김종택(1995), 『국어의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남기심·고영근(2002), 『(개정판)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41, 국어학회.
- 송명수(1989), 「언어에 관한 속담의 의미 기능 연구」, 전북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심재기(1982), 「속담의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관악어문연구』7, 서울대학교.
- 양영희(1990),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윤석민(2002), 「의미 현상과 비의미론적 정보」, 『텍스트언어학』12, 텍스트 언어학회.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기종(2000), 「{뚝하다}, {뚝싶다}, {성싶다}의 의미 차이」, 『한국언어문학』44, 한국언어문학회.
- 이상철 역(2004), 『최신 의미론』, 한국문화사.
- 이영제(2004), 「특수조사 ‘들, 요, 줌’의 통사론적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이윤하(2007), 「부사(어)구 수식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50, 국어학회.
- 임지룡(2008),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주경미(2008), 「20세기 초기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경봉(2000), 「단어의 의미 확장과 어휘 체계」, 『대한언어학』8, 대한언어학회.
하진희(2006), 「우리말 관용표현의 관용성 척도 설정 연구」, 동아대학교석사
학위논문.

John I. Saeed(2003), *Semantics-Second Edition*, The Blackwell Publishing
Led.

Ray Jackendoff(1990), *Semantic Structures*, The MIT Press.

_____ (2002), *Foundations of Language : Brain, Meaning,
Grammar, Ev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국문초록】

본고는 속담이 발현되는 과정에 포함된 형식과 의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념주의자적 의미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개념주의자적으로 문장의 의미 구조를 분석하면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에 의하여 속담을 분류하면 크게 <사건>류, <상태>류, <대상>류 속담 유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상태>류 속담이 가지는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의 구조가 다른 유형의 속담에 비하여 다양하게 나타남을 1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1장에서는 <상태>류 속담의 최상위 의미/개념의 구조에 따라 <상태>류 속담을 <상태>형 속담, <상태{사건}>형 속담, <상태{대상}>형 속담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의 중심 논의가 되는 2장에서는 <상태>류 속담의 하위 유형의 전형적인 속담들을 제시한 후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에 해당하는 속담의 서술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개념주의자적 의미론의 방법으로 각 유형의 속담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을 논항들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를 통해 각 속담의 의미와 기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폈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해서 속담을 관용의미가 아닌 직설표현이 기준이 되어 분류할 수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속담의 직설의미의 의미 구조를 통해 속담의 관용의미와 속담의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개념주의자적 의미론, 최상위 의미/개념 목록, <상태>류 속담, <상태>형 속담, <상태{사건}>형 속담, <상태{대상}>형 속담

【Abstracts】

A study on the semantic structure's type of 〈State〉 category proverb

Go, A-Ra

This article made conceptualist semantics as theoretical foundation, in order to apprehend relativeness between the form and the meaning of proverb, during its manifestation. If semantic structure of proverb is analyzed with conceptualist point of view, there are uppermost semantic/concept lists, and if the proverbs are classified with these lis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overbs could be classified into <event> category, <state> category and <object> category in general.

The chapter 1 suggests that among those category of proverbs, the <state> category of proverbs' uppermost semantic/concept list has more diversity in structure than the other category of proverbs. In the 1st chapter, the <state> category of proverbs were classified into <state> type, <state(event)> type and <state(object)> type according to the uppermost semantic/concept structure of the <state> category of proverbs.

In the chapter 2 which is the main discussion of this article, the subtype typical proverbs of the <state> category proverbs has been presented and then analyzed describing part of the proverb in the uppermost semantic/concept list.

Also, each type of proverbs has been analyzed with conceptualist

semantics approach, analyzing the connections between each characteristic with the arguments, and studied to find how the meaning and function of proverbs are manifested.

In short, it has been found that the proverbs can be classified not with the idiomatic meanings but with straightforward expression throughout this research. Also, it has been found that how the idiomatic meaning connects with the function of proverbs through the straightforward expression's semantic structure.

Key words : conceptualist semantics, uppermost semantic/concept list, <state> category proverb, <state> type proverb, <state(case)> type proverb, <state {object}> type proverb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